

2 Special Edition

김대건 신부와 그의 기록

글. 서종태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김대건 신부의 생애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집안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일 당시 충청도 솔피(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에서 살았다. 이곳은 내포의 사도로 유명한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이 살던 여사울(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에서 10리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 덕산에 살며 정산 이병휴 문하에서 학문을 닦던 복암 이기양 밑에서 공부한 이존창은 1784년 겨울 한국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권일신(프란치스코 사베리오)을 통해 입교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 천주교를 널리 전파했다. 이때 김대건 신부의 조상들도 이존창을 통해 입교했다. 특히 김대건 신부의 조부 김종원(보명 택현)은 이존창의 딸 멜라니아와 혼인했다.



01_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의 집안에서 맨 처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증조부인 김희안(보명 종현)이다. 이후 김희안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동생들인 김종원·김종한(보명 한현, 안드레아)·김계원(보명 희현, 루도비코)이 입교했으며, 그의 아버지인 김진후(보명 운조, 비오)도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후 김대건 신부의 집안은 대대로 신앙을 이어나가면서 모두 10명의 순교자를 배출했다. 우선 그의 증조부인 김진후가 1791년부터 붙잡혔다가 풀려나기를 거듭하다가 1805년에 다시 체포되어 1814년 해미에서 순교했다. 이어 증조부인 김종한이 경상도 영양의 우련밭에서 신앙 생활하다가 1815년 을해박해 때 체포되어 1816년 대구에서, 당고모부인 손영옥(요셉, 김종한 사위, 김 테레사 남편)이 1817년에 체포되어 1824년 해미에서, 아버지인 김제준(보명 제린, 이냐시오)이 1839년 기해박해 때 서울에서, 당고모인 김 테레사(손영옥 부인)가 1839년 서울에서, 김대건 신부 자신이 1846년 병오박해 때 서울에서, 당숙인 김명집(보명 제향, 루도비코)과 재당숙인 김준명(보명 제교)이 1866년 병인박해 때 공주에서, 사촌인 김 베드가 1867년 공주에서, 김 베드로의 동생인 김 프란치스코가 병인박해 때 해미에서 순교했다.

김대건 신부는 이렇게 신앙전통을 오래 이어가며 여러 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가문에서 1821년 김제준과 고 우르술라의 장남으로 솔피에서 태어났다. 그 후 그의 집안은 증조부 김진후가 1814년 순교한 뒤 신앙생활이 여의치 않자 차차 고향을 떠났으니, 그의 조부 김제준은 가족들을 이끌고 서울 성 밖 청파동에 가서 살다가 1827년에 용인 태화산 자락의 한덕동(현 용인군 이동면 목리 한덕골)으로 이주한 다음 다시 골배마실(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소재)로 거처를 옮겨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던 1836년 그는 신학생으로 선발되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주문모 신부와 교회 지도자들을 대부분 잃은 한국천주교회는 박해가 잦아들자 다시 교회를 재건하여 성직자 영입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자 교황청에서 1831년 조선대목구를 설정하고 그 사목을 파리 외방전교회에 위임했다. 이에 초대 교구장인 브뤼기에르 주교가 입국을 위해 노력하다가 만주에서 선종한 뒤 모방 신부가 1836년 초에 입국하여 사목활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인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신학생을 선발했다.

우선 신학생으로 최양업(토마스)과 최방제(프란치스코 사베리오)를 선발하고 나중에 김대건을 뽑았다. 이 때문에 김대건은 다른 두 신학생보다 4~5개월 늦은 1836년 7월 11일(양력, 이하 같음)에야 비로소 모방 신부 댁에서 라틴어 공부를 시작하여 그 공부가 부진했다. 그래서 다른 2명과 함께 유학을 보내기가 주저되었지만, 앞으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그해 12월 2일 김대건을 다른 2명과 함께 파리 외방전교회 동양대표부가 있는 마카오로 유학을 보냈다.

세 신학생들은 무사히 중국에 입국한 뒤 2명의 중국인 안내자를 따라, 8개월 동안 요동과 만주와 중국을 걸어서 횡단한 끝에, 다음해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했다. 그들은 동양대표부에 세워진 조선 신학교에서 대표부에 머물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라틴어·프랑스어·성가·교리·철학·신학 등을 배웠는데, 교수 신부들로부터 가장 촉망을 받은 신학생은 믿음이 가장 강하고 신심도 가장 깊으며 라틴어 공부도 제일 잘한 최방제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방제는 공부를 시작한지 6개월도 채 못 되어 위열병에 걸려 1837년 11월 27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은 두 신학생 중 최양업은 몸도 아주 건강하고 판단도 좋아 조선 교회를 위해 유익한 몸이 될 것으로 교수 신부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김대건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내 복통과 두



02_ 김대건 신부의 관과 묘비석(1901, 한국교회사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전례박물관 소장, 사진제공 서울역사박물관) :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용산예수성심신학교로 옮기면서 유해를 영구적으로 봉안하기 위해 유해 위에 덮었던 대리석 판과 이를 담았던 관이다. 묘비석 위쪽의 'PX'는 '예수 그리스도', 'AK'는 '안드레아 김대건'의 라틴어 첫 단어, 아래의 숫자는 김대건 신부의 생몰년이다.

성교회의 력터 스기물 상고
신후로 보더 종도들이 성교
은혜를 널니 배프시매 각방
님이 업고 이 곳 처 감화함의
숨은 실노예수의닐은 신
시 오 그 때에

통과 요통을 앓은 데다, 글을 어떤 때는 상당히 잘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편없이 쓰기도 하며, 행동이 자주적이고 경솔하기도 하며 판단이 늘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수 신부들은 그의 장래에 대해 회의 를 품었다.

그러나 김대건은 1842년 메스트르(Maistre, 李) 신부와 함께 세실(Cécille) 함장이 지휘하는 에리곤호를 타고 조선 입국을 시도하며 신학 공부를 계속하면서부터 그의 신학교 생활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에리 곤호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 건강이 좋아진데다 에리곤호를 타고 필리핀과 중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제1차 중영전쟁 때 영국군에게 패한 현장도 둘러보았으며, 중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하면서 8월 29일 영국과 청나라 간에 남경조약을 체결하는 장면도 참관했다.

세실 함장이 애초의 행선지를 변경하여 에리곤호를 이용한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9월 11일 에리곤호 에서 내린 메스트르 신부는 김대건과 함께 책문을 통한 조선 입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이 과 정에서 김대건은 남다른 용기와 기지로 조선 밀사를 기적적으로 만나 기해박해로 유능한 밀사들이 모두 순교함에 따라 두절된 조선 교회와의 연락망을 복원하여 조선 밀사들의 도움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여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기해박해 이후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어 변문을 통한 입국이 어렵게 되자 선교사들은 경원을 통해 입국하는 동북방 입국로의 개척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1844년 조선 입국을 위해 애스턴 페레올 (Ferréol, 高) 주교는 용기와 열정이 남다른 김대건에게 훈춘(琿春)에서 두만강을 건너 경원으로 입국하는 동북방 입국로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김대건은 1844년 2월에 출발하여 임무를 성공적으 로 완수하고 4월에 돌아왔다. 이 동북방 입국로는 중국쪽 길과 조선쪽 길 모두 위험하여 선교사의 입국로 로 활용되지 못했지만 김대건은 이 여행을 통해 견문을 더욱 넓힐 수 있었고, 어려운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었다. 게다가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페레올 주교의 신임을 크 게 얻었다.

김대건은 1844년 12월 10일경 부제품에 오른 뒤 1845년 1월 페레올 주교와 함께 의주 변문을 통해 입 국하려다가 정부의 감시가 심하여 혼자만 입국했다. 이때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부제에게 입국한 뒤 배 한 척을 마련해 상해로 맞이하러 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여 4월에 11명 의 신자들과 함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사들을 영접하러 상해로 갔다. 이에 크게 감동한 페레올 주 교가 그에게 사제품을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는 8월 17일 김가항(金家巷)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다시 타고 왔던 작은 배(라파엘호로 명명됨)에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Daveluy, 安敦(尹) 신부를 태우고 천신만고 끝에 제주도를 거쳐 강경 황산포 나바위에 상륙함으로써 그들을 조선에 맞 아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조선의 양떼들은 목자를 다시 갖게 되었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11월에 서울에 도착하여 서울과 용인 일대에서 사목활동을 하던 중 서해를 통한 선교사 입국로를 새로 개척하라는 페레올 주교의 지시를 받고 1846년 5월 14일 마포를 출발하여 백령도 로 향했다. 그는 백령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백 척 가량의 중국 산동의 어선들이 음력 3월 초 순에 이곳으로 모였다가 5월 하순에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중국 어선들을 이용해 편지를 전달하고 선교사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6월 5일 그곳 관장과 시비가 벌어져 그는 사공들과 함께 체포되어 신앙을 증거한 뒤 9월 16일 새남터에서 군무효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하지만 그 는 탐사한 결과를 옥중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편지로 자세히 보고하여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렇게 김대건 신부가 개척한 백령도 부근을 통한 선교사 입국로는 페레올 주교의 보완을 거쳐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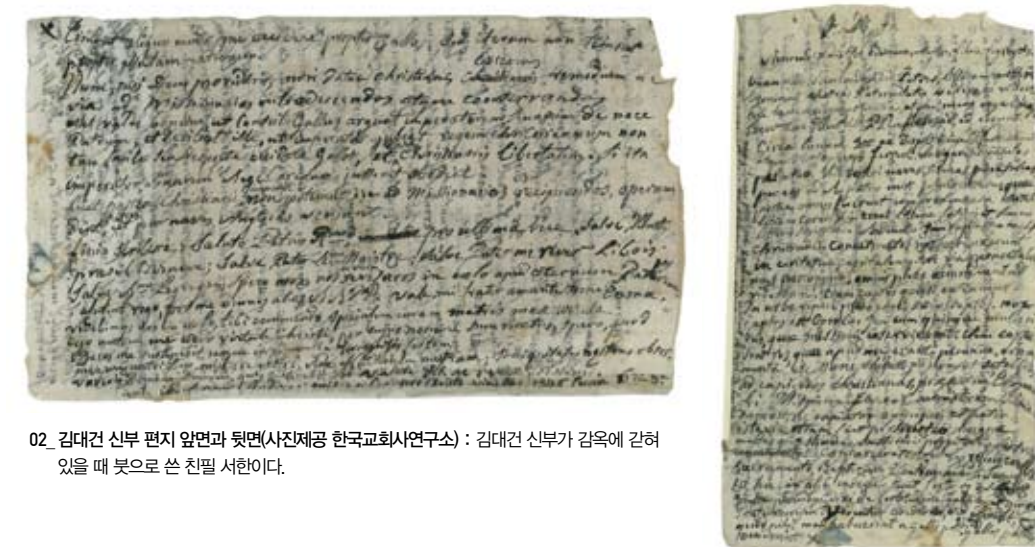
들이 중국 어선을 타고 백령도 부근에 와서 조선 배로 갈아타고 조선의 해변에 상륙하는 방식으로 완성되 었다. 그리하여 1856년 3월 이후로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거의 모두 이 백령도 부근을 통한 입국로를 이용하여 조선에 들어왔다. 한국 교회는 그를 잃는 대신에 더 많은 선교사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당시 서 세동점의 급박한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의 폭넓은 견문과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김대건 신부는 102위의 동료 순교자와 함께 1925년 7월 5일 시복되고 1984년 5월 6일 시성되어 국내 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널리 공경을 받고 있다.

2. 김대건 신부가 남긴 기록

김대건 신부는 사제로서 활동한 기간이 1년 1개월 밖에 안 되지만 서한,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 한 보고서」, 작문, 「조선전도」 등 적지 않은 자료를 남겼다. 우선 김대건 신부가 작성한 서한은 모두 21통 으로 1842년 2월 28일부터 1846년 8월 말 사이에 보낸 것들이다. 그 중 상해에서 보낸 것이 6통, 서울에 서 보낸 것이 5통, 요동 백가점(白家店)에서 보낸 것이 4통, 옥중에서 보낸 것이 3통, 몽고 소팔가자(小八家子)에서 보낸 것이 2통, 마닐라와 항주 앞바다 주산도(舟山島)에서 보낸 것이 각각 1통이다. 수취인으 로 보면 스승 리부와(Libois) 신부에게 보낸 것이 12통,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것이 4통, 스승 르그레주와 (Legrégeois) 신부에게 보낸 것이 3통, 고틀랑(Gotteland) 신부와 조선 신자들에게 보낸 것이 각각 1통,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와 메스트르·리부와·르그레주와 신부에게 아울러 보낸 것이 1통이다.

이 21통의 서한은 라틴어로 작성된 것이 19통, 한문으로 작성된 것과 한글로 작성된 것이 각각 1통인 데, 라틴어로 작성된 19통 가운데 두 번째 편지와 열다섯 번째 편지 2통은 유실되어 그 내용이 전하지 않 고, 스무 번째 편지는 라틴어 편지 원본은 유실되고 프랑스어 번역본만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한문으로 작성된 아홉 번째 편지는 한문 편지 원본은 유실되고 프랑스어 번역본만 전해지고 있으며, 한글로 작성된 스물한 번째 편지는 한글 편지 원본은 유실되고 1885년에 로베르(Robert, 金保錄) 신부가 필사한 사본만 전해지고 있다.



02. 김대건 신부 편지 앞면과 뒷면(사진제공 한국교회사연구소) : 김대건 신부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붓으로 쓴 친필 서한이다.



03_ 김대건 신부 편지 필사본

현전하는 이들 19통의 서한들 가운데 우선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일곱 번째 서한을 통해서는 김대건 신학생이 1842년에 이르러 6년간의 마카오 생활을 정리하고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조선 입국을 시도하며 신학 공부를 계속하는 과정, 에리곤호를 타고 필리핀·중국 등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제1차 중영전쟁 때 중국이 패한 현장과 남경을 둘러보고 중국어 통역관으로 남경조약 체결을 참관한 내용, 에리곤호를 이용한 입국을 포기하고 의주 변문을 통한 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선 밀사들을 만나 조선 교회의 소식을 듣고 두절된 조선 교회와의 연락망을 복원하여 밀사들의 도움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여는 내용, 밀사들의 도움 없이 무모하게 변문을 통과하여 의주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내용 등을 살필 수 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서한을 통해서는 페레을 주교의 지시로 1844년 2월~4월 사이에 약 두 달 동안 훈춘에서 두만강을 건너 경원으로 입국하는 동북방 입국로를 성공적으로 알아보고 돌아와 페레을 주교의 신임을 크게 얻은 내용을 살필 수 있다. 특히 7개월 간 공을 들여 ‘훈춘 기행문’을 서한 형식으로 작성한 아홉 번째 서한을 통해서는 그가 이 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고, 이를 작성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그의 한문과 중국어 실력, 학문에 대한 열정, 조선 입국을 위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의지 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훌륭한 문학작품이다.

그리고 열 번째~열두 번째 서한을 통해서는 김대건 부제가 1845년 1월에 밀사들의 도움을 받아 의주 변문을 통해 입국하여 서울 돌우물골에 머물며 중병을 앓아 고생하는 중에도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페레을 주교 등을 영입할 준비를 한 내용 등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열세·열네 번째 서한과 열여섯~열여덟 번째 서한에서는 1845년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에 김대건 부제가 작은 배를 타고 11명의 신자들과 함께 폭풍우 등 온갖 고난을 겪으며 상해에 가서 사제 서품을 받고 페레을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태우고 제주도를 거쳐 강경포 나바위에 상륙한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스무 번째~스물한 번째 서한을 통해서는 1846년 5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 페레을 주교의 지시에 따라 교우들과 함께 배를 타고 서해의 백령도 부근에서 고기잡이하는 중국 어선을 이용한 선교사 입국로를 개척한 과정, 붙잡혀 심문을 받은 내용, 마지막으로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등을 살필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는 김대건 부제가 1835년 변문을 통해 입국하여 3월과 4월에 서울에 있으면서 현석문(기름로) 등이 그 동안 수집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라틴어로 작성하여 상해에 가지고 가서 그해 7월에 리브와 신부에게 발송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1839년까지의 조선 천주교회사’로, 여기에는 ‘조선 교회 창립에 관한 개요’와 ‘1839년 기해박해의 진상’이 서술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1839년 기해박해의 순교자 전기’로, 여기에는 세 선교사의 순교와 조선의 형벌·감옥·재판 등에 대해 서술한 ‘1839년에 순교한 성직자들의 행적’과 ‘1839년에

서울에서 순교한 주요한 순교자들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조선 교회 창립에 관한 개요’는 김대건 부제의 순수한 저작이다. 그리고 ‘1839년 기해박해의 진상’과 ‘1839년 기해박해의 순교자 전기’는 기해박해 순교자들에 관한 최초의 정리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으로 작문은 김대건 신부가 신학생 시절에 작성한 라틴어 시험 답안이다. 모두 2편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자와 수도자를 각각 주제로 하여 신앙의 교훈을 설명한 것이다. 이 두 작문은 볼롬베이 농장으로 옮겨 공부를 계속하던 시기(1839년 4~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데플레슈 신부가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이 라틴어 작문 시험을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전도」는 김대건 부제가 1835년 1월 의주 변문을 통해 입국하여 서울의 돌우물골에 머무르면서 조선의 관변 지도를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김대건 신부가 이 지도를 제작하여 보낸 목적은 선교사들이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김대건 신부는 이 지도를 제작한 뒤 마카오에 있던 리브와 신부에게 보냈는데, 메스트르 신부가 중간에 받아 간직하고 있다가 1847년 상해 주재 프랑스 총영사인 몽티니(Montigny)에게 주었으며, 몽티니는 1853년 프랑스로 귀국한 뒤 1855년에 이 지도를 국립 도서관에 기증함에 따라 1855년 프랑스 지리학회에 소개되었다. 국내에는 1978년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최석우(안드레아) 신부가 파리 국립 도서관 지도부에서 이를 발견하여 소개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듬해 동 연구소에서 최석우 신부가 필름에 담아온 것을 복원하여 48.5×88cm 크기로 간행하면서 「조선전도」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들 현전하는 김대건 신부의 기록 가운데 16통의 라틴어 원문 편지와 아홉 번째 및 스무 번째 서한의 프랑스어 역본,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 그리고 작문 2편은 모두 파리 외방전교회 고문서고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동 고문서고에서 1984년 한국 천주교회 103위 시성을 축하하는 뜻에서 그 일체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로 이관하였다. 이후 주교회의에서 이들 서한과 보고서를 다시 절두산 순교 기념관으로 이관하여 현재 동 기념관에서 이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아울러 1885년에 로베르 신부가 필사한 스물한 번째 서한의 사본도 절두산 순교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자료 외에도 김대건 신부는 옥중에서 영국의 세계지도 한 장을 번역하였고, 컬러로 두 장의 세계지도를 만들었으며, 지리개설서를 편찬하였으나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백령도 부근을 통한 선교사 입국로를 개척하면서 그가 베르뇌·메스트르·리브와 신부 등에게 보낸 편지들과 「조선전도」를 보강한 조선지도 3장을 중국 배에 전달했으나 해주 관리에게 압수되어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인**

필자 소개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사학위 논문 「성호학파의 양명학과 서학」 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고, 「여지도서」 황해도편 1·2, 「존재집」 5권, 「문곡집」 3·4권(공역)을 국역했다.